

■ 법률 칼럼

## 미군 복무자의 밀입국 배우자나 밀입국 부모의 영주권 신청

이민이나 세관(Immigration and custom)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한 경우 현행 이민법 하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시민권자의 부모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많이 601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 받은 다음 한국에 나가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로 미군에 복무했거나 또는 복무 중인 경우에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법률 용어로 Place in Parole이라고 합니다.

모든 합법 입국자에게는 I-94라는 출입국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출입국 번호는 합법적 입국(Legal Entry)을 증명하는 중요한 번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이 합법 입국만 증명되면 현재 서류미비(undocumented: 불법 체류)자의 경우도 미국 내에서 시민권 배우자나 자녀의 이민 청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입국자의 경우에는 이 I-94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601 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10년/3년 입국 금지의 면제) 받은 다음 한국으로 돌아가 대사관 인터뷰(Consular Process)를 통해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밀입국한 분들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제대를 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그 배우자/자녀의 이민 청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배우자/자녀 immediate fam



▲ 사진/편집=shutterstock/타운뉴스

ily member)이 시민권자이고 미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것을 근거로 이민국에 Place in Parole을 신청하고 그 것을 이민국이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이민국이 꼭 미국에 새로 입국한 것처럼 새 I-94 입국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가지고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청원(Immigration Petition)을 통해서 한국으로 출국없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밀입국자들 중에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 중인 경우로 많은 분들이 위에 소개해드린 제도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밀입국을 하신 분들 중에 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에 복무 중이신 분들은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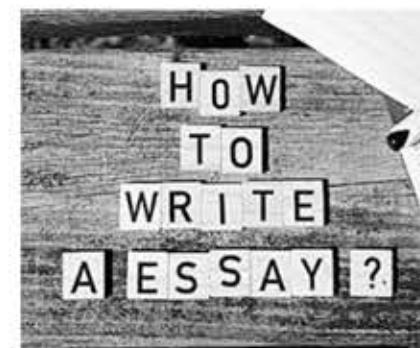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교육

## 에세이 통해 '뚜렷한 개성' 드러내라

팬데믹을 겪으면서 상당수의 대학들은 표준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 정책을 버렸다.

대신 많은 대학들은 시험점수 제출을 원하는 학생만 점수를 내도록 하는 옵션 정책을 채택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립대 시스템인 UC의 경우 아예 표준시험 점수를 받지 않는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을 도입했다.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테스트 옵션 정책이 확대된 상황에서 에세이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그러므로 에세이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을 들인다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면서 경쟁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세이 작성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자신이 쓴 에세이를 읽어보고, 다듬으면서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늦어도 11학년 직후 여름방학 시작과 함께 에세이 작성을 시작해야 한다.

고유의 개성을 에세이를 통해 부각시킨다면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에세이의 소재를 브레인스토밍 할 때, 즉 어떤 토피컬로 글을 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주변의 다른 학생들과 무엇이 다른지 깊이 생각해 본다. 입학 사정관들도 어른이 되기 전에 청소년기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학생, 독특한 개성을 갖춘 학생을 찾는다.

학사정관들도 사람이다. 에세이를 읽을 때 지원자 100명 중 100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평범한 스토리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남들이 다를 법한 팬한 내용의 에세이는 피하는 것이 좋다.

만일 역사를 좋아한다고 에세이에 쓰고 싶다면 역사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좋아하는가? 내가 심취한 역사적 사건이나 시기가 있는가? 나는 왜 그 사건이나 시기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이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나는 다른 학생들과 뭐가 다른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를 에세이를 통해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고민해보자.

세 번째는 '팔방미인' (well-rounded)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학 입시에서 뛰어난 성적과 양질의 추천서는 출발선이나 다름 없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명문대학 입시에서는 더욱 그렇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잘하는 것도 물론 큰 강점이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닌 멋진 색깔보다는, 한쪽으로 기울어서 개인의 개성이나 색깔이 잘 드러나는 학생이 대학 입시에서 더 유리하다.

어떤 학생들은 특정 과외 활동에 열정을 갖고 스테이트 또는 내셔널 수준의 성과를 낸다. 큰상을 받고,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는다. 또 어떤 학생들은 교사들과 훌륭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능력을 인정받아, 추천서에서 교사가 '나의 27년 교사 인생 동안 경험한 학생들 중 가장 뛰어난 학생'이라고 칭찬한다.

이런 강력한 성과나 좋은 추천서가 있다면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일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